

“국내문제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제문제는 한국과의 관련에서”

“인터뷰를 할 때 난 세 가지, 정보·지식·가치판단을 항상 머리에 떠올립니다. 9·11 테러 같은 사건이 생기면 미국 일변도의 정보나 가치판단에 기대지 말고 다른 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균형형을 맞추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사건의 본질이 뭐냐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다른 의견도 전해주어야지요.”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지난 1998년 5월부터 “국내문제는 반드시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제문제는 반드시 한국과의 관련에서 쓴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매주 한 번씩 〈투데이〉 칼럼을 썼다. 《마키아벨리의 충고》는 5년 가까운 기간 국내외 현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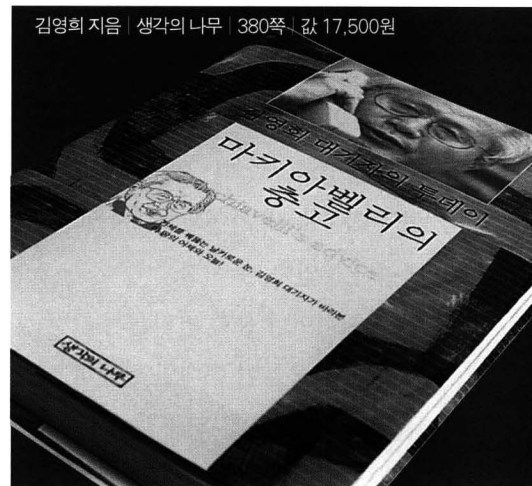


대한 그의 칼럼을 묶어낸 칼럼집이다.

“칼럼을 쓸 당시에 내가 가장 절실히 생각한 게 뭐였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가장 중요한 어드바이스가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초심에는 순수성이 있다가 점점 사적인 게 끼어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스럽다는 사리가 끼어들면 초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책을 내는 시점에 봐도 여전히 절실하더군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판 내지는 충고가 되겠다 싶어서 책 제목을 ‘마키아벨리의 충고’라고 한 겁니다.”

제목 후보로 또 하나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스키피오의 꿈’이었다. 인간의 권력욕, 명예욕이라는 건 우주에 비하면 티끌 같은 것이니 큰 정치를 하라는 주문의 칼럼이었다. 하지만 스키피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결국 ‘마키아벨리의 충고’로 제목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칼럼하면 보통 주장만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전 한 사건이 발생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전례가 있는가 먼저 살펴보고, 국내문제와 국제정세를 연결해 봅니다. 세계가 한국 속으로 밀려들어오고 한국이 세계로 나가기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관성을 떠난 한국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거지요. 팔레스타인 문제만 보아도 당장 유가와 관련이 있지요. 국제정세와 국내문제와의 연결은 국제문제 대기자인 내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2월 17일 〈북핵과 한미관계〉라는 전문가 좌담에서 사회를 보는 등 그는 북핵문제와 한미관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신경하고 낙관적인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당장 일본이 가지려고 할 테고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할 겁니다. 그러면 대만도 가질려고 하고 남한도 그러려고 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 전체가 핵을 깔고 앉아 살게 됩니다. 핵방석을 깔고 잠을 자게 되는 격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갖고 벼랑 끝 외교, 즉 협상 카드로만 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한이 정말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을 하고 있고, 그런 징후들이 농후해졌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생각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의 북핵 문제에 대한 무신경은 지나친 낙관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동포인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겠느냐,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과 햇볕정책에 따른 '평화의 배당금'을 우리 국민이 너무 일찍, 턱없이 많이 받은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안보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무감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가장 못견뎌하는 건 ‘선의의 무시’ 정책이에요. 미국은 북한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기 전에 빨리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햇볕정책의 기조도 좋고 방향도 좋다고 판단한다. 다만 햇볕정책이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책에 실린 칼럼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젊은 세대의 신문 구독률이 줄어 들고, 체험기사 등 기사의 형식이 점점 소프트웨어는 등 일간지의 유연화 현상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는 우리나라 중앙 일간지의 경쟁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답변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나오는 전국지가 10개 정도 됩니다. 생사를 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기자들은 어떻게든 기사 놓치지 말아야 되고, 시선을 끌어야 되고, 특종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지요. 이런 경쟁구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정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신문이 자기 특성을 살려야 하고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전 한 사건이 발생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전례가 있는가 먼저 살펴보고, 국내문제와 국제정서를 연결해 봅니다. 세계가 한국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한국이 세계로 나가기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관성을 떠난 한국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거지요.”

신문의 컬러를 보고 독자가 선택하게 해야지, 자전거나 텔레비전이나를 보고 선택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신문들이 각자 차별성을 갖자는 것인데, 그러면 또 컬러 경쟁이 일어나겠지만,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경쟁이 될 겁니다.”

그는 1936년생이다. 6·25와 냉전 시대를 겪어온 세대의 한 사람이다. 그에게 월드컵의 국민축제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2030세대들의 에너지는 놀랍기도 하고 낮은 것이었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

“냉전이 끝나고 우리의 의식지평이 확 넓어졌습니다. 이런 상황하에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구나 확인하게 월드컵 때입니다. 붉은 악마들을 떠올려보자구요. 붉은 악마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다시 한 번 발산된 게 촛불시위인데, 전 반미감정으로 우리가 실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30세대의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이 입장에서 2030세대의 사회문화적인 변혁의 측면에 주목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신문을 만드는 데 있어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충고》에는 이처럼 한 중앙 일간지 대기자의 시각에 잡힌 1998년 5월부터 2003년 1월까지의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현주소와 9·11 테러에 대한 슬라보이 지젝,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기 소르망 등 세계 지성들의 시각이 담긴 인터뷰를 비롯한 국제정세에 대한 진단이 담겨 있다. **★**

취재 양선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